

【연구논문】

『에브리맨』에서의 노년과 포스트휴머니즘

한광택

(충북대)

1.

“자, 이렇게 끝나네요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아빠” (Well, this is how it turns out. There’s nothing more we can do, Dad). 한 줌 권 흡을 관 뚜껑 위에 흘뿌리기 전, 삼십대 중반의 딸은 “무심하”(lightly)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른 채”(bewildered) 이제 영영 떠나보내야 할 관 속의 부친에게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토로한다(4).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신의 출생을 가능하게 했던 친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치게 과잉된 의식이나 격정적 감정의 몰입이 없으면서도 결코 초연할 수 없는 그녀의 모호한 감정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생경한 경계를 가족사의 일부로서 실감하는 낯선 체험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딸의 미묘한 반응은 더 이상 생존하지 않게 된 부친의 삶의 총체적 의미를 엿갈리게 회고하는 다른 가족들의 추도사들, 그녀보다 훨씬 간명한 평가와 판단을 내어 놓는 반응들과는 선명하게 대조된다. 한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젊은 모델과의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과 이혼을 겪어야 했던 기억이 상흔으로 남아 있는 둘째 부인은 뚜렷한 애증의 감정을 간결하게 드러냈고, 그와의 관계회복을 끝까지 거부해온 첫째

부인의 두 아들들은 여전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보였으며, 동생이었던 그를 늘 애정으로 대했던 형의 추도사는 안타까움과 회한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이처럼 혈연으로 또는 법률상에서 고인의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제대로 교감되지 않은 방식으로 교차되는 각각의 회상과 그로부터의 추도사들이 그의 장례의 의미를 덧칠하는 동안, “무심히”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작별인사를 고하던 그녀와 죽은 부친 사이에 놓인 모호한 심적 거리의 끝에 걸린 당혹감은 이제 필립 로스(Philip Roth)의 『에브리맨』(Everyman)의 첫 장면을 읽은 독자들이 풀어가야 할 수수께끼로 독자들에게 건네진다.

독자들은 우선 로스가 작품 속에서 일인칭 시점과 삼인칭 시점을 번갈아 오가며 주인공의 회고의 궤적을 따라 재현하는 그의 과거 삶이 어떤 여정을 거친 끝에 첫 장면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복합적인 의미의 죽음을 남겨 놓고 떠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로스는 생명유지를 위해 여러 관과 기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연이은 대수술들에 시달렸던 주인공의 고달픈 노년과 그의 노년의 시점에서 반추되는 과거의 사적인 장면들을 회상으로 엮어내는 형식을 취하는 서사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처럼 죽음으로 유예시키기 위한 모든 의학적인 노력을 경주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향해가는 한 노인의 자전적인 서술을 따라가게 되는 독자들이 『에브리맨』을 읽는 경험은 가차 없이 허물어져가는 그의 육신과 정신의 퇴락을 내밀하게 지켜보고 그의 현재로 소환되는 기억들이 증언하는 수치스럽고 치졸하기까지 한 지난날의 그를 은밀하게 마주보는 관음증적 긴장과 부담의 은밀한 인력을 체험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로스가 세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한 노년의 표면과 이면은 실존적인 생존의 기제가 육체적 생명의 유지뿐만 아니라 살아온 기억들 중 특정 부분의 편집적인 망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로스는 망각을 통해 강제로 봉인시켰던 과거의 시간들이 죽음을 앞두고 심신이 취약해진 주인공의 기억과 회상의 틈 사이로 슬그머니 빠

저나와, 즉 망각의 학살로부터 살아남은 과거의 트라우마(trauma)가 완치의 기약 없는 수술들로 고통 받는 육체에 정신적 괴로움까지 가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특히, 그의 망각이 미처 완전히 봉인하지 못한 틈새들을 일관되게 자기 본위적인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회상들로 막아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재봉인에 실패하는 과정과 한 인간의 생존여부를 결정하지만 자체의 속성은 인공적인, 즉 비인간적인(nonhuman) 수술 기기들과 장치들이 체내에 삽입되고 그에 전적으로 생명과 삶이 의존하는 과정을 병치한다. 이를 통해 로스는 노년의 실존적 양태에 기입된, 단순히 기존의 인본주의(humanism)로 환원될 수 없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이해되는 삶의 의미를 천착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연구들과 논의들에서는 로봇공학, 보철공학기술, 나노공학, 신경과학, 뇌과학, 유전공학, 양자역학, 기타 포스트라는 접두사가 붙은 첨단 이론들 등이 맞물려 새로운 인식과 경험의 시간과 공간에서 탈인본주의적이고 탈인문학적인 문제의식이 어떻게 발아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고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그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근대 인본주의의 전제들과 조건들의 제한과 제약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존재의 실존적 조건과 문제들을 새롭게 고찰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원봉의 개념 구분에 따르면 “트랜스휴먼”(transhuman) 개념이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존재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상태를 지칭한다면, “포스트휴먼”(posthuman)은 “인간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과학기술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더 많은 특성을 갖는 존재”이다(237-38).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에브리맨』에서 재현되고 있는 노년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존재 방식이 맞물린 지점에서 생명유지의 핵심 기능이 인공화된 비인간적인 조건들이 새롭게 촉발하는 한 개인의 생물학적, 실존적 삶의 의미가 규정되고 수용되는 방식들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에브리맨』은 장편 소설 작가로 더 널리 알려진 로스의 작품들 중 소품으로 분류되는 중편 소설인 까닭에 다른 장편 소설들과는 달리 작품에 대한 면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확인되는 몇몇 서평들이나 짧은 분량의 논문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는 한계적 시간의 비정함과 허무 및 그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종교적 위안이나 안식이 무용하고(Neelakantan 170), 육욕을 해소할 일말의 가능성마저 좌절되며(Omer-Sherman 163), 무기력한 노인이 토해내는 극복될 수 없는 피로, 우울, 슬픔, 분노에 투영된 실존의 근원적이고 필연적인 비극성에 주목한다(Aaron 4-5). 9/11 사태와 신자유주의의 세계경제 속에서 중산층이 느끼는 위기감을 포착해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Knapp 80-81), 이와 같은 분석들은 생의 여로 끝에 선 인간존재를 엄습하는 사멸과 그 종교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결국 유사한 주제를 탐색한다. 『에브리맨』에 관한 학회 토론에서 논의된 주제들 역시 죽음의 의미와 관련하여 겹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Bernard F. and Royal; Shostak; Simon). 하지만, 『에브리맨』에서 로스는, 한 인터뷰에서는 작품이 “병”(illness)에 시달리는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약하고 작품의 전체 서사가 그러한 주제에 맞추어져 전개된다고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Interview with Philip Roth” 1:53), 실제로는 병과 죽음에 관한 기존의 진부한 해석들이 손쉽게 도출되지 않을만한 특정한 설정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한다.

예를 들어, 『에브리맨』에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노년기에 관한 로스의 섬세한 묘사는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 및 그 실존적 의미에 관한 무수히 반복되어온 인본주의적 성찰을 다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생물학적 수명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예민하게 감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일련의 부단하고 영악한 인식을 재현한다. 이를 위해 전작들

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주로 암(cancer)을 설정에 사용했던 로스는 (Pozorski 106) 『에브리맨』에서는 결말에서 결국 71세에 사망하게 되는 『에브리맨』의 주인공이 주로 심혈관 수술들을 겪는 인물로 설정한다. 그는 죽기 전까지 9년째 매년 심혈관 수술을 겪지만 가장 최근에 받았던 “5중 관상동맥 우회 수술”에서 회복한 후, “그의 육체를 (육체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고안된 인공장치들의 저장소로 바뀌버린 시간”(time having transformed his own body into a storehouse for man-made contraptions designed to fend off collapse)으로 자신의 말년이 편입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 그에게 오직 남은 수명으로서만 유의미한 말년의 시간은 자기의식이 여전히 활성화된 존재가 사투하는 안타까운 생존시한이라기보다는, 혈관 내에 겹겹이 삽입된 인공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효 기간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그에게 죽음의 동의어는 육체의 “붕괴”일 뿐이고 삶의 동의어는 그러한 붕괴를 막는 인공적 조치의 지속에 다름 아니다. 노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낯선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은 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생기와 활력의 추동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더 이상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게 되었다. 생명유지를 위한 “인공장치들의 저장소”라는 정해진 경로의 숙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의미가 인본주의적 성찰과는 무관한 차원에서 생존의 비인간적인 구성요소의 기능과 목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정초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 역시 그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죽음에 관한 진지한 철학적 사유나 사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내적 성찰이나 주관적 생각도 내보이지 않는다(Schermbucker 42). 그런데, 이러한 관찰과 분석은 절반만 옳다. 왜냐하면, 그의 노년은 전적으로 무념무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수동적인 수용의 자세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관성과 그

것이 이끄는, 결국 부질없지만 부단한 일종의 저항의 태도를 드러내는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이다. 몸 안에 삽입된 인공장치들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조건에서만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그가 이제 몰두하는 당면한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을지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사망에 대한 생각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하고 교활해져야 했다”(Defusing thoughts of his own demise had never required more diligence and cunning 16). 그렇지만 이전보다 더 바쁘고 간교하게 활성화된 주관적 의식이 이끄는 그의 선택은, 다시 말해 사실상 그에게 남은 유일한 주체적인 선택은 철저하게 자기본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과거로부터 불러내는 기억들을 “부지런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다시 직조하는 일이었다.

그의 노력은 아홉 살 때 겪은 “탈장수술”의 일화를 회상의 시발점으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 옛 경험이 작품의 서사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공포에 사로잡힌 채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어린 그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위압적인 죽음을 상상할 때 그의 정신에 각인되었던 생경하면서도 생생한 공포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의 그는 그 이전 여름에 2차 세계대전 중 해변으로 흘러 온, 독일 잠수정의 어뢰에 격추당했던 유조선에 타고 있던 선원의 통통 불은 주검을 해안경비대가 옮기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25-26), 것처럼 어린 나이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있었다가 그가 수술을 받던 날 아침에 안 보이던 다른 소년이 죽었다고 확신하고는 “의사들이 저 소년을 죽이고 있다”고 믿었다(27-28). 이러한 기억들은 그로 하여금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강렬한 죽음에 관한 강박관념을 갖게 하였고, 이후 삶의 행로에서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게 될 때 그 강박적인 공포를 소환하는 원초적 장면(primal scene)을 구성하였다. 실례로, 노년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그의 회상이 기억하는 장면들 속에서 생의 첫 수술 경험

을 겪었던 아홉 살 이후 건강하게 살다가 삼십 사세에 이르러 예기치 않게 겪게 된 “충수염과 복막염” 수술, 그리고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다가 오십 오세 때 처음 받은 “심혈관수술,” 그리고 육십 사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련의 복합적인 심장과 혈관 관련 수술들은 모두 첫 수술 때 어린 심신이 강렬하게 체험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요컨대, 아홉 살 때의 수술 경험은 간헐적으로 회귀하는 트라우마로서 작용할 수 있는 충격적인 체험이었다. 그러나 중년 이후 인생에서 겪는 중요한 선택들과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시 실감하게 만들게 되었을 때 그는 윤리적 성찰이나 삶의 의미에 대한 성숙한 각성과는 무관하게 아홉 살 소년이 느끼는 압도적인 공포의 감정만을 일으킬 뿐이었다. 결국, 죽음의 원초적 장면은 원형적인 상태로만 회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삼십 사세 때 겪었던 “충수염과 복막염” 수술은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소망에 따라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안정된 생계를 위해 광고계에 진출했”던 그가 결혼이 “감옥”임을 깨닫고 “그를 사로잡는 수많은 괴로운 생각 끝에 발작적으로, 고민을 하며, 밖으로 나갈 터널을 뚫기 시작”한 끝에 “질질 끌고 있던 치욕스러운 전쟁이 잔뜩 낳은 그 모든 추한 생각들을 마음에서 비워내려고” 결심한 새로운 삶의 행로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버리고 선택한 새 애인과의 행복한 연인관계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30-32). 흥미로운 점은 그가 충수염과 복막염의 증상을 느끼기 전에 애인과 밤 해변을 걸을 때 “핑음을 내며 밀려드는 검은 바다와 별들로 가득한 하늘 때문에” 그녀는 “환희에 젖었지만 그는 공포에 질렸다”는 사실이다(29-30). 그는 “도대체 이런 공포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왜 그가 “절멸의 가장자리(the edge of extinction)에 있다는 상상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30). 사실, 그가 “종말과의 무시무시한 조우”([t]errifying encounters with the end 32)라고 이름 붙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홉

살 때 처음 가까이에서 조우했던 죽음의 공포가 그때의 막연하지만 압도적인 방식으로 중년의 그에게 그대로 회귀한 것이었다. 독자들은 그 연관 관계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지만, 정작 그는 그 인과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그가 스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혐오”와 “수치”로 점철될 뿐이었던 결혼생활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였으나 “특별하고자 한 적은 없었”고 “다만 나약하고 취약하며 혼란에 빠졌던” 상태였으며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절반을 정신 착란에 빠져 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보니 그러한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그는 비록 죄 없는 자식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였다”(32).

이와 같은 해명과 정당화는 일단 의학적인 인과성이 결여된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아홉 살 때 각인된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우고 삼십 사세 때의 자신의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선택과 그에 따른 명백한 윤리적 과오를 변명하고 어떻게든 변호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뒤바꾼 인과성의 강조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가 겪는 수술 경험들이 그의 회고의 전경에 차례대로 나열되는 방식에서 작가가 은연중에 가리키는 그의 서사의 구조적, 기능적 틈새와 맹점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령, 그는 첫 결혼생활을 “갑혹”이자 “치욕스러운 전쟁”이며 “정신착란”에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환멸하면서도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친절하며 온화하고 온건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자인하고(“그를 잘 아는 이들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동의할”) 방종과 일탈보다는 안정되고 안락한 삶에 굶주린 자라고 자평하는 선명한 모순을 초래한, 이기적인 이혼결정으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자식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가했을지라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도 중국에는 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가 어릴 적 겪었던 탈장수술 때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적 공포는

그의 자기 본위적 확신의 취약한 논리적 근거에 대한 불안한 자의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유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이혼의 후유증”을 극복 가능하게 해준, “수영과 하이킹을 하고 아무 때나 섹스를 즐기는” 새 애인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향유하는 동안에도 “마침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에도 왜 자신의 삶을 불신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자신이 절멸의 가장자리(the edge of extinction)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지”를 자문하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29-33). 즉, 죽음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쾌한 체험으로 죽음의 반대급부인 삶의 쾌락과 그 정당성을 위협하였지만, 완벽하게 해명할 수 없는 난제로서만 인식될 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윤리적 인식이나 철학적 통찰을 촉발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를 사로잡는 실존적 불안과 공포는 오히려 그의 생의 욕망의 동력을 자극하는데 기여할 뿐으로 그는 자신이 아직 서른넷에 불과하며 따라서 죽음이라는 영원한 “망각(oblivion)”은 일흔 다섯이 되어서야 걱정하면 된다는 자위에 만족한다(32).

이처럼 『에브리맨』에서 주인공의 회고를 전달하는 서사는 그의 관점에서 어느 독자를 염두하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를 뿐이지만 그 방향성은 일정하다. 그가 지난 과거를 현재의 기억으로 소환하는 “부지런하고 교활”한 방식은 당시의 실제 조건과 상황에서 저질렀던 도덕적 잘못과 그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의 원인을 변색 혹은 탈색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인,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식을 경유한, 과거의 재구성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의식이 육신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생명유지의 핵심기능이 사실상 인공화된 자신의 몸을 주체성의 담지체가 아닌 객관적인 대상으로 관조할 수 있게 된 까닭에 역설적이게도 그의 의식은 더 이상 육체적 조건이나 외부적인 상황에 얽히거나 얽매이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에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회고를 통해 과거를 새롭게 전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한편, 삼십대의 주인공에게는 불가능했지만 훗날 실존적 불안과 각성의 침투를 제대로 겪는 경험은 여전히 죽음에 관한 인본주의적 사유와 성찰의 경유가 아닌, 그의 존재와 생명유지의 근간이 비인간적 요소들로 강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수술과정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 인간의 주체적 의식을 추동하고 그 방향성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따라서 로스가 재현하는 노년은 전통적인 휴머니즘으로 환원되는 묘사들로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역에서, 즉, 포스트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인간성의 낯선 구성조건들과 그 효과들을 가리킨다.

최근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고 있는 주요 평론가들 중 한명인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삶과 죽음의 개념을 규정하는 인본주의를 구성하는 기존의 생물학적, 법의학적, 실존주의적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연속체로서의 삶과 죽음의 생산적인 측면”(the productive aspect of life-death continuum)에 주목하고, “죽음을 생명의 목적론적 목적지”가 아닌 “의식의 차원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며 “비인격적이고 지속적인 현재, 영속적인 되기”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시하였다(132). 『에브리맨』의 독자들이 작품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요건들은 브라이도티가 개념화된 포스트휴머니즘과 유사한 특성들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에브리맨』에서 노년의 주인공은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 목적론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된 연속적인 실체로서 이해한다. 아직 젊고 건강하던 시절의 그에게는 “절멸”이자 “종말”의 동의어와 같은 죽음은 예기치 않고 예외적인 불행으로 인식되었으나, 갑작스런 심전도 저하의 원인인 관상동맥 폐색을 치료하기 위한 첫 심장 수술을 겪게 되자 그는 아홉 살 때 그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으나 결국 죽은 것으로 여겼던 소년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는 오십 오세 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검진을 받은 결과 주요 관상동맥의 심각한 폐색 증상이 발견되어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수술에 앞서 그의 코에는 두 갈래로 갈라진 산소호흡기가 꽂혔고 수많은 전선들이 그의 몸과 심장 모니터링 기기를 연결하였으며 정맥주사로 마취제를 투여 받아야 했다. 그런 후에 그는 일곱 시간 동안 다섯 차례의 혈관이식수술을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인간적 존재조건이 낯설게 재구성된 시간에서 그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그는 살아왔었고 그 소년은 죽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가 그 소년이 된 것이다”(41-43).

일곱 시간 동안 진행된 대수술 동안 “그는 그에게 피를 뿜어주고 그를 대신하여 숨을 쉬어주는 심폐 기계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그의 다리에서 건강한 혈관을 꺼내 이식 조직을 만들어 다른 곳에 삽입하였다. 회복실에 되돌아왔을 때 그의 기도에는 관이 꼽혀 있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간호사는 그가 숨을 스스로 쉴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관을 즉시 빼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4). 이렇듯 갑작스레 비인간적 구성요소들에 의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재구성된 그에게 생존뿐만 아니라 삶 역시 체내에 삽입된 기계장치의 작동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목적론적 목적지”가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 그에 따라, 죽음은 그의 인간적 존재의 인격이나 품성에 의해 주체적으로 의미화되는 경험이 아니라 연장된 수명이 누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상시적으로 지속하는 현재적인 경험이 되었다. 이렇듯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새로운 존재 조건에 놓인 그는 당시 또 한 차례의 너절한 이혼을 거치고 세 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음에도 퇴원 후 단지 육육의 충족을 통해 생의 활기를 되찾으려는 의도로 개인 간호사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50). 일관되게 그는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덕목들이나 가치들로 환원되는 반성이나 성찰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해 치룬 부친상, 특히 하관식에서 묵도한 매장의 “오싹함”(chilling)을 거칠게 느끼며 타인의 죽음을 통해 삶의 종결의 매정한 덧없음을 소름끼치도록 깨닫기도 한다(61). 하지만, 경험 역시 그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죽음에 대한 그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유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는 9년 뒤인 64세 때 받은 “신장동맥 확장성형수술”이었다(62). 이 수술은 폐색된 동맥 내의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혈관 성형술을 실시한 후에 폐색의 재발을 방지하고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재협착의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의학용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코발트 합금 금속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작은 팽창성 망 튜브인 스텐트(stent)를 혈관 내에 삽입하는 것으로, 이때 설치된 스텐트는 동맥 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9년 동안 매년마다 그는 차례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 “혈관 형성 수술”을 통해 동맥 폐색이 발견된 곳마다 스텐트를 삽입 받았다. 또한, “라이터 크기의 얇은 금속상자” 모양의 전류장치인 “심장제세동기”가 가슴부위에 삽입됨으로써 심장과 연결된 전선이 심박동 불규칙해질 경우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박동수를 바로잡고 죽음을 혼란스럽게 할” 준비를 갖추었다”(66-75). 그 결과, “이 모든 수술절차들과 입원과정들 때문에 그는 퇴직 첫해보다 결정적으로 더 고독하고 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그는 스스로 소중히 여기던 평온하고 고요한 삶이 그 자신이 만들어낸 고독한 감금의 형식으로 변질되었”으며 결국 “종말(the end)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쇠약해진 육신이 초래한 소외감에 맞서 더 열의를 가지고 주위 세계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그림교실을 직접 운영하였다(79). 하지만 그림교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을 더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죽음과 관련된 생각에 사로잡힐 것만 같은 두려움과 절박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세

계관은 냉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력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로 과감하게 나아간 적이 없는 채 남아 있었다.

일관되게 로스는 주인공의 노년이 자기반성적 휴머니즘으로 온연하게 귀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그의 회고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들과의 관계를 그들이 중년이 된 후에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인 무유형의 피해를 입은 그의 첫 번째 이혼뿐만 아니라 그가 스물여섯 살이나 어린 미녀 모델과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두 번째 이혼을 했을 때 그를 “비열하고 무책임하며 천박할 정도로 정신세계가 미숙한 호색한”으로 치부하며 사정없이 경멸하였다. 신경은 썼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과거의 그와는 달리 이제 어느덧 71세에 이른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밀려드는 외로움과 슬픔을 못 견디어 그들과의 화해를 막연히 바라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은 그들의 맹렬한 분노를 상기할 때면 이혼이 흔한 미국에서 가정폭력도 쓰지 않고 이혼 후에도 부양의 의무를 다했던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슬픔과 가책을 더 겪어야 하는 거냐며, 그리고 여차피 달라질 것은 없었을 거라며, 도리어 그들의 “사악함”을 맹비난하고 자신의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95-98). 그러나 이러한 자위는 둘째 부인이 그를 비난하였듯이 그가 “능숙하고 집요하며 사악한 거짓말쟁이”(121)라면 그의 치졸함을 방증하는 사례일 뿐이다. 즉, 관계회복이 불가능한 책임은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적인 인격과 성품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사실을 습관적으로 완전히 망각한 관점에서 과거를 회고한다.

망각은 주인공에게 영원한 잊혀짐으로 사실상 죽음의 동격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아픈 진실은 잊혀짐으로서의 죽음이 삶의 뒷면이라면 죽음의 앞면인 삶은 잊음으로서의 망각이 자행하는 학살의 터라는 사실이다. 그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하고 근황을 확인하게 된, 심근경색으로 급사하고 정신병동에 입

원해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과거의 직장동료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 들으며, 그가 그들의 “사투,” “후회,” “상실,” “공포,” “공황,” “고립,” 그리고 “두려움”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말해, “그들의 존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말살되어가는 과정”을 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가 무난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155). 요컨대, “노년은 전투가 아니라 대학살이다”(Old age isn't a battle; old age is a massacre 155-56). 삶과 죽음이 병치된 시간을 살아가는 포스트휴먼이 겪는 노년이 남은 생을 두고 지난 생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진실은 그가 늘 살아온 경험들의 일부들을 망각함으로써 현재의 그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그가 가차 없이 망각을 통해 학살해 온 기억의 대상들은 오직 자기본위적인 존재의 영위를 위해 희생을 당해야 했었다는 진실은 이제 인간적인 자기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만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로스가 서사화한 포스트휴먼의 노년은 망각의 대량 학살의 폐허 위에 구축된 견고한 생존의 뼈대만 남은 공허한 흔적에 불과할 뿐이다.

4.

생존을 위해 망각이 비워낸 내용들은 노년에서의 사후적 기억들이 더듬는 과거의 단절된 이음새에 자리하고 있기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노력은 곧 필사적으로 쓸기 없는 생의 의미를 완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에브리맨』의 주인공이 망각해왔던, 삶의 중요한 연결 지점들과 그 접점들은 진심어린 후회와 애탄의 대상으로 일제히 소환됨으로써 그의 인생은 비로소 온전한 평가를 그 자신으로부터 받게 된다. 총 세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헌신할 줄 몰랐으며 일탈

과 비행, 실수와 변명을 연쇄적으로 이어가며 그를 한결같이 아끼던 유일한 혈육이던 형에게조차 냉담하였던 그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추악한 의미와 비로소 대면하는 그 순간을 로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자신이 완전히 없애 버린 모든 것들, 딱히 이유도 없었는데 자신의 의지로 제거해버린 모든 것들, 이보다 훨씬 위악스럽게, 자신의 모든 의도와는 반대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없애버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한 번도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던, 늘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형에게 가혹했던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가족을 버림으로써 자식들에게 주었을 영향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이제 단지 육체적으로만 이전에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깨닫게 되자,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마다 박자를 맞추듯 가슴을 쳤던 그였지만, 그는 심장계 세동기를 불과 몇 인치 차이로 빗난 곳만을 치고 있었다.

At the realization of all he'd wiped out, on his own and for seemingly no good reason, and what was still worse, against his every intention, *against his will*—of his harshness toward a brother who had never once been harsh to him, who'd never failed to soothe him and come to his aid, of the effect his leaving their households had had on his children—at the humiliating realization that not only physically had he now diminished into someone he did not want to be, he began striking his chest with his fist, striking in cadence with his self-admonition, and missing by mere inches his defibrillator. (158)

이 장면에서 로스는 포스트휴먼의 조건에 기입된 주인공의 뒤늦은 윤리적 각성의 부질없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의 온전한 존재의 조건, 즉, 그를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최후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마주하게 이끈다. 칠년 째 매해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결과 혈관 곳곳에 삽입된 스텐트의 기능이 유효한 한에서 유지되는 생존의 시한 내에서 그의 각성은 사실 어떤 더 나은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염두하거나 지

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비참한 노년을 “예견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생산적이고 활력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고 남성성이 사라진 존재 상태의 개선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전에는 “어떻게든 사라진 구성요소가 기적처럼 되돌아와 그를 다시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의 지배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바란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단계에 있으며, 종말이 닥칠 때까지 남아 있는 목적 없는 날들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인정한다(161). 그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의 혈관 곳곳에 삽입된 여섯 개의 스텐트는 그에게 곧 두려움 없이 작별인사(goodbye)를 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164). 따라서 그에게 주체적인 죽음은 더 이상 사후 잊혀짐으로서의 망각의 차원이 아니라 죽기 전, 즉 스텐트의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미리 그 종료시점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가능한 자의적인 “떠남”(Leaving)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하지만, “떠남(으로서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의식한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기에 “떠남”은 더 고통스럽고 지난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그 지독한 어려움은 오히려 그의 숨을 옥죄며 공포에 질린 채 깨어 있게 만든다(165). 결국, 주체적인 떠남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도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He couldn't go. The tenderness was out of control 171). 그가 마침내 떠날 수 있게 된 시점은 전신 마취를 선택하여 마지막이 될지 모를 “경동맥 수술”을 받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마침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존재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no more, freed from being), 의식들로부터 사망선고가 내려진 순간이었다(181-82).

이처럼 로스의 『에브리맨』에서 독자들이 읽어낼 수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은 의학적 차원에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실현됨으로써 인간과 비인

간적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경계와 구분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가치와 권리를 우위에 둔 전통적인 위계적 질서의 유지와 강화에 복무해온 휴머니즘의 문제를 폭로해온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과는 변별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에브리맨』에서 스텐트와 심장제세동기가 삽입된 신체에 대한 묘사는 휴머니즘적 주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탈인본주의적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의 고찰, 혹은 그 가능성의 탐색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특히 차이점이 뚜렷하다. 『에브리맨』은 노년과 결부된 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에 일관된 초점을 맞추으로써 삶과 죽음의 인본주의적 가치와 가능성 및 새로운 탈인본주의적 가치와 가능성 모두를 비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로스에게 있어서 노년은 “대학살”로서의 삶과 “떠남”으로서의 죽음 사이의 시간으로서 포스트휴먼의 조건에서 그 시기를 감내해야 하는 인간주체에게 그 어떤 가치나 가능성에 대한 반성이나 모색은 무의미할 뿐이다.

로스의 이와 같은 관점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반박하는 관점 역시 비판한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논쟁에서 인본주의적 보수주의의 관점을 견지하는 후쿠야마(Frances Fukuyama)는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존재조건은 본질적으로 인간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란 개념이 여전히 실재하고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species)으로서의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안정된 연속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한다(7). 따라서 인간임을 구성하는 기본조건의 결여가 바로 포스트휴먼인 까닭에 포스트휴먼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의 대가나 다름없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주장이다(262). 이런 이유를 내세워 그는 포스트휴먼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계속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는 개념인데 포스트휴먼의 생존조건은 기술적, 의학적, 법적 양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존엄성 개념은 더 이상 가치우

위적인 영광을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누릴 수 없게 되었다(Jotterand 51). 그럼에도 로스에게 있어서 포스트휴먼은 후쿠야마의 전제들을 더욱 복잡한 맥락에서 흔들어 놓는 근거로서 제시된다. 즉,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들이라는 진실을 드러내고 삶의 실체적 의미가 사후적으로 또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는 또한 죽음이 삶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기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비겁함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촉발제로서 기능할 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박은 이론이 아닌 문학이 현실에서 실재하는 하나의 존재 양태로서 자리 잡은,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존재조건의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기계장치의 가치중립적 기능성은 그 자체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체내에 삽입된 장치를 지닌 채 그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삶이고 중단이 곧 죽음인 노년의 개인은 낮은 윤리적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에브리맨』에서 포스트휴먼의 실존은 신체 내에 삽입된 기계장치들의 정언명령인 “곧 두려움 없이 작별인사를 고해야 한다”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인간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로스는 포스트휴머니즘에서의 인간 존엄성을 근거를 공유된 가치의 확인과 유지에서 찾으려는 입장(Meulen 70)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에브리맨』에서 재현되는 노년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담지하고 이행하는 개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로스의 주된 관심과 목적인 한 특정한 개인의 사회적 경험의 총합이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노년이 사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집하고 재창작하는 일련의 시도의 실패와 좌절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 시도는 인간 본연의 추상적 존엄성의 확보와도 거리가 먼 노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개인은 낮은 윤리적

딜레마를 끌어들이고 실존적 고뇌를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스스로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시제는 더 이상 인본주의적 존엄성의 가감을 위한 시간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숨과 들숨이 거칠어지는 노년이다. 노년은 포스트휴먼으로의 진입구이다. 늙어가고 병들어가며 차가운 금속 재질의 기계장치들의 채내 삽입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인간들은 모두 포스트휴먼으로의 전이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며 『에브리맨』은 그와 같은 전이 과정에 관한 한편의 보고서이다.

따라서 『에브리맨』에서 로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편적인 존재가 겪는 개별적인 실존의 비극성이 아닌, 개별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실존의 비극성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가 인간성(humanity)과 무관한 속성을 가졌지만 인간의 생존의 필수조건인 기계장치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의식 깊이 기입된 특정한 노년의 주체가 자기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든 자족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려 하는 노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 노력의 마디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균열은 포스트휴먼이 드러내는 보편적인 비루함과 취약함을 가리킨다. 일관되게 휴머니즘이 아닌 포스트휴머니즘의 견지에서 실존의 의미를 다시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는 로스가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노년처럼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인간의 실체와 그에 관한 믿음이 남기는 의미를 필사적으로 묻는 주체의 부질없음과 맞닿아 있다. 이 아픈 진실을 독자들은 책의 마지막 장을 읽어가며 대면하게 된다.

Works Cited

- 이원봉, 「생명윤리와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의 존엄성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6 (2013): 235-59.
- Aarons, Victoria. "Where Is Philip Roth Now?" *Studies in American Jewish Literature* 31.1 (2012): 6-10.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London: Polity, 2013.
- Fukuyama, Francis.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 Jotterand, Fabrice. "Human Dignity and Transhumanism: Does Anthropotechnological Devices Have Moral Statu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0.7 (2010): 45-52.
- Knapp, Kathy. *American Exceptionalism: The Everyman and the Suburban Novel after 9/11*. Iowa City: U of Iowa P, 2014.
- Meulen, Ruud ter. "Dignity, Posthumanism, and the Community of Value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10.7 (2010): 69-70.
- Neelakantan, Gurumurthy. "Review." *Shofa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23.4 2007: 168-70.
- Omer-Sherman, Ranen. "Review." *Philip Roth Studies* 2.2 (2006): 161-65.
- Pozorski, Aimee. "Confronting the Word: Cancer and Death in Philip Roth's Fiction." *Philip Roth Studies* 11.1 (2015): 105-23.
- Rogers Jr. Bernard F. and Derek Paret Royal. "Grave Commentary: A Roundtable Discussion on *Everyman*." *Philip Roth Studies* 3.1 (2007): 3-25.
- Roth, Philip. *Everyman*. New York: Vintage, 2006.
- _____. "Interview with Philip Roth (Part 1)." YouTube. 4 Jul. 2007. Web. 30 Nov. 2016
- Schermbucker, Ben. "'There's No Remaking Reality': Roth and the Embodied Human Condition in *Everyman*." *Philip Roth Studies* 11.2 (2015): 39-53.
- Shostak, Debra. "Roth's Graveyards, Narrative Desire, and Professional Competition with Death."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16.2 (2014).
- Simon, Bart. "Introduction: Toward a Critique of Posthuman Futures." *Cultural Critiques* 53 (2003): 1-9.

- 논문 투고일자: 2016. 12. 01
- 심사 완료일자: 2016. 12. 20
- 게재 확정일자: 2016. 12. 27

Abstract

**Ageing and Posthumanism in
Philip Roth's *Everyman***

Kwangtaek H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way in which Philip Roth in *Everyman* represents the posthuman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where an old man cannot but lead a life contingent on artificial/nonhuman medical devices to complicate and challenge the existing posthuman notions of humanity and human dignity, as well as the foundational concepts of modern humanism. By focusing on how Roth narrates the protagonist's suffering of medical operations and subsequent retroactive recognitions, I shed new light on the implicit correlation between ageing and posthumanism in *Everyman* in terms of their collective role in the author's posthuman reformulation of the significance of life, ethics of past, and self-evaluation and self-admonition. By depicting this correlation, I claim, he leads readers to consider new posthuman conditions of being, ageing, and death already set for those who live in the biotechnological age.

Key Words

필립 로스(Philip Roth), 에브리맨(*Everyman*),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휴머니즘(Humanism), 존엄성(Dignity), 노년(Ageing)